

소니아 리키엘의 니트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Knitwear Design by Sonia Rykiel

최광돈*

에프씨엔케이 대표

Choi, Gwang don

Director of FCNK

Abstract

Knitwear has become a part of fashion since aristocratic trend-setters of Medieval Spain and France began wearing luxurious silk stockings. However, in more recent times knitwear emerged as a fashion item in the early 20th century when jersey two-piece Channel dresses became popular amongst the French upper classes. Knitwear then evolved into genuine going out clothes through Sonia Rykiel in the 1970s. Sonia Rykiel has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developing knitwear, which she transformed from being used only in informal dresses or clothes for home wear, to a boarder in use in high-quality dresses such as those worn at parties. Unlike most designers who tend to make very different styles each year, she has restricted her clothes to those made with knitwear. The study examined the designs and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her knitwear in order to clarify why Sonia Rykiel's knitwear fashion is apparently so timeless. Results showed that her garments consistently used black oriented color combination, stripe patterns, intarsia techniques and application of diversified subordinate materials and other materials that overcome earlier limitations of knitwear. In addition, her designs consistently express the typically Parisian sophisticated urban femininity through practicality, sensuality and playfulness. Overall, her fashion has shown that it exists for women in action through practical design within the scope of demode, the philosophy in her early days, and it has led her to hold great power over knitwear fashion for the past 40 years.

Keywords: anti-fashion, demode, practicality, sensuality, playfulness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의복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소재는 크게 직물(woven)과 니트(knit)로 나뉘어지는데, 우리가 입는 대부분의 옷이 직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은 직물 이외의 소재나 그 소재를 활용하는 디자인에 대한 지식이 약한 편이다. 특히 니트는 직물에 비해 디자인의 접근성이 어

렵기 때문에 유명 디자이너들 조차도 전문 스튜디오에 디자인과 생산을 의뢰하고 있으며 국내의 실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흔히 21세기를 ‘레저의 시대’라 한다. 이것은 현대인의 중요한 관심사가 여가시간의 확보와 효율적 활용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러한 의식의 변화와 소비심리의 욕구는 활동성 및 기능성, 심미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새로운 창조 형태와 디자인을 요구하고 있다. 니트는 신축성, 보온성, 유연성과 같은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현대인의 다양한 니즈를 만족 시킬 수 있는 최적의 아이템으

* Corresponding author: Choi, Gwang don
Tel: 02) 541-8089, Fax: 02) 541-8752
E-mail: ck0419@hanmail.net

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니트의 수요가 선진화된 사회일수록 높아지고, 자유로운 사고의 패션리더집단에서 더욱 선호되고 있으며, 브랜드의 상품 구성에서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세계의 유명 디자이너들도 컬렉션에서 니트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으며 니트 전문 브랜드도 생겨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니트의 부상은 최근의 현상일 뿐 1910년대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가브리엘 샤텔(Gabrielle Bonheur Chanel: 1883~1971)에 의해 실용적인 소재인 니트 저지(jersey)가 곁으로 등장한 이후에도(박숙현, 이관이, 2004)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은 니트 디자인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프랑스의 패션디자이너 소니아 리키엘(Sonia Rykiel: 1930~)은 대표적인 니트 디자이너로 디자인 활동을 시작한 1960년대부터 당시로서는 일반적이지 않던 니트에 패션성을 가미해 패셔너블한 외출복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자신만의 독보적인 세계를 구축하면서 ‘니트의 여왕’이라는 별칭을 얻고 있다(Jones & Ruthton, 2008).

소니아 리키엘은 니트로 표현 할 수 있는 모든 아이템과 기법에 도전하였고 처음 매장을 오픈한 1968년부터 현재까지 40년의 기간 동안 니트를 중심으로 한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다. 로버트 알트만(Robert Altman)의 영화 ‘프레타 포르테(Pret A Porter, 1994)’의 실제 모델이기도 한 그녀는 니트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디자인으로 유명하며 실용적이면서 세련된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세계적인 니트 디자이너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니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 대표적인 니트 디자이너인 소니아 리키엘을 대상으로 그 디자인이 시대를 초월해서 지속성을 갖는 이유를 규명하기 위해 대표 아이템인 니트웨어를 중심으로 디자인 특성을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디자이너 소니아 리키엘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이연희 외(2009)는 2002 S/S ~ 2008 F/W에 이르는 기간에 컬렉션에서 발표된 작품을 색채 위주로 분석하여 그녀의 니트 패션에서 색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미화(2003)는 본인의 작품 제작을 위한 분석의 도구로 1990~2000년대 전반기까지의 작품을 실루엣 위주로 분석하였을 뿐이며, 실질적으로 소니아 리키엘의 니트 디자인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니트웨어 디자인의 현업에 종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적인 관점에서 소니아 리키엘의 작품을 재조명하고, 4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정상을 유지

하는 지속성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을 통해 생명력 있는 니트 디자인을 위한 요인을 파악하고 니트 디자인 실무를 위해 활용 가능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소니아 리키엘이 처음 매장을 오픈한 1968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작품을 분석하여 그녀의 디자인 철학과 시대에 따른 작품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디자인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조형 요소를 분석하기 위한 기준은 자료의 객관적 분석과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10년 이상 니트 디자인의 실무에 종사한 전문가 7인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그 결과 색채에 대한 관점과 편직기법에 대한 관점, 그리고 타소재를 응용한 장식의 관점과 다양하게 전개되는 니트 아이템의 관점으로 분류되었다.

소니아 리키엘의 디자인에 자주 응용되는 표현 유형의 지속성 여부를 연구하기 위한 시대적 범위는 디자이너로써 활발한 활동을 시작한 197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의 디자인을 10년 단위로 분석하였으며, 최근 소니아 리키엘 니트 디자인의 특성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기 위해 시대적 범위를 좁혀 2001~ 2010년까지 최근 10년간의 니트 디자인을 분석하였다. 디자인 특성의 연구내용은 III장에서 도출된 유희성, 실용성, 관능적 여성성 등의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며, 같은 작품에 2개 이상의 조형성이 나타나는 경우는 우선성에 기초하여 분류하였다.

문헌 자료는 국내의 자료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원서나 '구글(www.google.com)' 등 해외사이트의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였으며, 사진자료 또한 2000년대 이전까지의 자료는 원서를 활용하고 2000년 이후의 자료는 세계적인 패션전문 인터넷사이트인 '퍼스트뷰 닷컴(www.firstview.com)'과 '스타일닷컴(www.style.com)' 등의 해외 사이트를 통해 컬렉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II. 소니아 리키엘의 디자인 세계

디자이너 소니아 리키엘은 1968년 첫 매장 오픈 이후 1976년부터 활발한 창작 활동을 통해 파리에서 전 세계로 시장을 확대하였고,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니트 제품의 라이센스 생산을 하고 있다. 여기서는 디자이너 소니아 리키엘의 작품분석에 앞서 디자인 세계를 형성하게 된 배경 요소를 살펴보자 한다.

1. 파리지엔느의 세련된 미감

소니아 리키엘은 1930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으며 20세에 ‘로라(Laura)’라는 작은 부티크를 경영하는 남편과 결혼하여 평범한 주부로 살았다. 디자인에 대한 정규수업을 받은 경험이 없는 그녀가 니트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62년 첫 아이를 임신하였을 때였다. 상류층에서 태어나 직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전업주부에 만족하였던 시기에 남들과 다른 일부복을 입길 원하였지만 기존 일부복의 단순한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스스로 일부복을 만들어 입기로 결심하고 남편이 운영하던 부티크의 제작자에게 디자인을 제시하며 제작을 부탁하였다.

이렇게 탄생하게 된 것이 주위 상류층의 입소문을 통해 멀리 미국에까지 유행하게 된 '뽀와 스웨터'이다(村上新子, 2001). 이 옷은 작고 피트되어 일반적인 일부복과는 다른 실루엣을 가능하게 하였다. 니트의 특성으로 인해 활동이 편안한 것이 최대의 장점이었으며, 울, 아고라, 모헤어 등 부드러운 소재로 만들어져 몸을 숨기기보다는 몸을 돋보이게 하는 형태였다(Golbin, 2001).

처음에는 입기 편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니트와 저지라는 소재에 마음이 이끌리게 되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니트의 여왕이란 칭호까지 얻은 그녀는 주부로서 살아온 경험이 옷에 베어나는 그러면서도 파리지엔느의 멋스러움과 도회적 이미지가 살아있는 옷을 디자인하였다.

소니아 리키엘의 니트디자인 특성을 분석함에 있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1970년대의 시대배경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때는 여성 파워가 강해지면서 베이비붐 세대의 여성들이 커리어우먼으로 성장하였고, 합리적이고 실질적이며 편안한 복식을 추구하던 시기이다. 때문에 니트나 팬츠 슈트같은 새로운 형태의 활동적인 아이템이 선호되었고 꾸준한 시장 확대가 가능한 시기였다(금기숙 외, 2002). 특히 실용적인 디자인을 선호하는 미국에서 인기가 높았던 소니아 리키엘의 니트는, 당시의 시대 조류에 힘입어 활발한 디자인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지금까지 그녀의 니트는 퇴근 후의 모임에도 어울릴 수 있는 즉,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충분히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2. 탈유행(demode)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슬로건으로 프랑스의

정치체제를 뒤흔든 학생운동 ‘5월 혁명’의 열기가 뜨겁던 1968년 8월 젊음과 자유로움의 거리 생·제르만·데·프레에 부티크를 처음 오픈하게 되고, 마침 파리 모드계에 불어닥친 반페션(antimode)의 바람과 오뜨 꾸띠르의 퇴조에 힘입어 순조로운 출발을 하였다.

의상이란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되어야 한다는 안티페션의 개념은 착용이 쉽고, 다양하게 코디할 수 있는 옷을 추구하는 소니아 리키엘의 철학과 일치하였다(Mendes & De la Haye, 1999/2003). 이곳은 지금은 고급 브랜드가 나란히 줄서 있는 패션중심지가 되었지만 1970년대 초만 해도 혁명의 열기와 자유로운 해방감이 넘쳐나는 곳이었다. 오뜨 꾸띠르나 고급 부티크가 몰려있는 중심가와 달리 전통의 중심에서 벗어난 새로움과 자유가 넘쳐나는 부티크가 차례로 생겼으며, 히피(hippy), 맥시(maxi), 미니(mini) 등의 모든 스타일을 어울리게 입은 젊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60년대는 당시의 유명한 디자이너 발렌시아가도 쇠퇴하고 앙드레 꾸레쥬의 미니열풍이 혁명의 상징이 되었듯이 패션도 대변혁기인 시기였다(Buxbaum, 1999). 상류사회의 전유물이던 모드(mode)가 프레타 포르테의 출현으로 대중화의 시대를 맞고 있었으며 이 같은 지각변동은 안티모드라 불리며 기존의 법칙에 따르지 않는 자유롭고 새로운 모드를 탄생시켰다(Lipovetsky, 1987/1999). 소니아 리키엘의 철학으로 일컬어지는 데모드(demode : 탈유행)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시작되었다. 결과 안을 뒤집어 보기도 하고, 봉제선을 밖으로 내놓기도 하고, 스커트 밀단을 재단한 상태에서 봉제하지 않기도 하고, 어깨패드를 떼기도 하는 등 옷 만드는 기본 상식을 파괴하였다. 또한 소니아 리키엘의 옷들은 가끔 끌처리나 안감이 없었고 옷의 이름 부분들이 밖으로 드러났다.

1976년 자신의 창작과정을 데모드라 말했을 때, 그녀의 디자인은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상당한 호응을 얻게 되었다. 소니아 리키엘이 말하는 탈유행이란 옷을 입는 사람이 자신의 개성에 맞게 스스로가 소화해서 창조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디자이너가 만들어낸 것을 그대로 입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바로 이러한 반 모드적 사고가 디자인 철학의 시작이었다. 이러한 디자인 경향은 각자의 개성과 취향이 중시되는 현대적 감성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최근에 발표되는 디자인 작품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3. 여성 관점의 디자인

소니아 리키엘의 옷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하고, 시대를 초월하는 모드로서 지속되게 한 이유는 샤넬과 마찬가지로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옷”이었다는 점이다.

일찍부터 여성디자이너들이 패션에 관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패션을 주도하고 있는 이유에는 광범위하게 펴져 있는 편견 및 패션산업내의 권력구조와도 관련이 있다. 때론 남성들이 여성보다 더 창조적이고 여성을 더 아름답게 보이도록 디자인한다고 간주된다(Craik, 1993/2001). 그러나 소니아 리키엘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는 개의치 않았다. 자신이 입고 싶은 옷,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만들기 위해 디자인을 시작하였고 자신과 같은 체형에 어울리는 옷을 디자인하고, 자신을 위해 옷을 만들고 그래서 그것이 어울리고 좋아하는 사람이 입기를 원했다.

소니아 리키엘의 이 같은 말은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 역설이 바로 디자이너가 갖추어야 할 가장 진정한 태도일지도 모른다. 자기 옷을 만들 듯이 타인의 옷을 만든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흔히 남성 디자이너들은 자유로운 사고로 디자인에 접근하기 때문에 과감하고 다소 과장된 천재성이 발휘되기도 한다. 하지만 여성 디자이너들은 여성의 입장에서 옷을 보기 때문에 입고 벗을 때의 편리함이라던가, 걸을 때의 불편함까지도 고려하는 것이 습관화 되어있다. 이처럼 여성의 시각으로 본 실용성과 자신감으로 시대를 초월하는 옷을 디자인하는 것이 또 다른 그녀의 철학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철학 이야 말로 남성 지배적인 세상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확신을 지닌 보기 드문 여성으로 증명되어졌으며 스스로가 원하는 원치 않은 샤넬의 진정한 후계자로써 세계에서 가장 큰 패션시장 미국을 정복하게 되었다(Francois, 1999).

III. 소니아 리키엘 디자인의 조형요소와 변천

1. 색채와 색채조화

편직 방법에 따라 색채의 교환이 자유로운 니트웨어는 색채 대비에 의한 시각적 효과를 이용하여 디자이너의 정체성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다. 소니아 리키엘의 니트 디자

인에서 검정색은 자신의 빨강머리와 함께 트레이드 마크로 인식되어 있다. 그녀에게 있어 검정색은 관습에 대항하는 색상이고 자유와 엘레강스를 의미하며, 기대 이상의 색채 조화를 발견하게 하는 배경으로 사용된다 (Golbin, 2001).

패션에서 사용되는 검정색은 1920년대에 샤넬의 리틀 블랙 드레스에 활용된 이후 ‘어두움’, ‘공포’, ‘죽음’ 등의 색채 이미지와는 달리 ‘모던함’, ‘세련됨’, ‘저항성’ 등의 패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샤넬은 검정색을 “모든 색을 이기는 절대적인 색”이라 말하며, 디자인의 많은 부분을 검정색 또는 검정색과 배합된 기타의 유채색으로 구성하였으며, 폴 푸와레의 화려한 색상에 대한 해독제로 사용하였다(이미숙, 1999).

니트 패션에서의 검정색은 1960년대 프랑스의 실존주의 사상이 프랑스의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주었을 때 검정색 터틀 스웨터를 착용하여 그들의 시대의식을 표출하였으며, 그들에게 검정색은 젊음과 저항의 상징이었다(진성모 외, 2002). 이같이 유행색과는 거리가 있던 검정색은 안티 패션의 영향권에 있던 소니아 리키엘에 의해 본격적으로 니트웨어에 사용되었으며, 1980년대 일본 디자이너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다만 소니아 리키엘은 검정색을 다른 색들과 대비시켜 편직하거나 강조색을 위한 바탕색으로 사용하여, 검정색이 주는 정적이고 무거운 이미지를 경쾌하고 도시적인 모던함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림 1]은 검정색을 주조색으로 사용하여 입술 모티브를 인타샤 기법으로 표현하였다. 빨강색이 가지고 있는 정열적인 색채 이미지와 붉은 입술에서 관능적이고 유희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는 검정색과 아이보리 색의 스트라이프로 구성하여 마린룩의 시원함과 캐주얼한 기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스트라이프의 배색이지만 소니아 리키엘의 니트 패션에서 지속적으로 응용되고 있다. [그림 3]은 자칫 복잡해질 수 있는 7도 배색의 스트라이프에 검정색을 대비시켜 안정적이면서 생동감 있는 색채 조화를 보이고 있다. [그림 4]는 컬렉션에 항상 등장하는 검정색의 심플하고 쉬크한 디자인이다. 핑크색을 강조색으로 사용하여 여성스러움을 표현하였다. 이처럼 소니아 리키엘의 디자인에 응용되는 색채는 자신을 대표하는 검정색을 중심으로 매년 적정 수준의 트렌드 컬러를 수용하여 디자인에 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경쾌한 컬러들의 다색배색이 증가하여 캐주얼하면서 활동적인 감각을 보여준다.

2. 장식과 디테일

우본 디자인에 비해 실루엣과 소재의 사용이 단조로운 니트웨어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부자재를 활용한 장식을 하는 것도 소니아 리키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초기 디자인부터 응용된 비즈(beads)나 스톤(stone) 등의 장식은 니트웨어의 단순하고 엘레강스한 실루엣에 럭셔리한 부가가치를 더하고 있다. 울과 양고라 루렉스를 혼합한 원사로 편직한 후 골드 색상의 비즈로 장식한 스웨터는 같은 색상의 저지로 제작한 팬츠와 헤어밴드로 구성되었다. [그림 5]는 니트로 토탈 룩을 제시한 초기 작품으로 자칫 진부해 보일 수 있는 니트웨어를 피트되는 스웨터와 커다란 포켓, 비즈를 응용하여 캐주얼하게 표현하였다. [그림 6]은 검정색의 기본 가디건에 크리스탈 구슬을 달아 우아한 여성성을 강조하였으며, 머리 장식과 모자에도 같은 이미지의 장식을 응용하였다.

모피와 악세사리를 활용하여 니트웨어의 부가 가치를 높이는 방법도 주기적으로 나타난다. [그림 7]은 심플한 팬츠와 스웨터를 강조하기 위하여 모피 머플러와 비즈로 장식된 핸드백을 코디하였다. 니트로 제작된 캐주얼한 모자를 매치하여 럭셔리하면서도 편안한 활동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8]의 디자인은 사회적인 슬로건을 니트웨어에 인타샤 기법으로 표현했던 70년대 작업의 연장선상에 있다(Black, 2002). "Have a dream"이라는 문구를 비즈를 이용하여 표현하였으며,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희망과 유희를 강조하는 작업방식을 직접적인 문구를 통하여 전달하고 있다.

3. 편직 기법의 응용

니트로 작품의 대부분을 발표하는 소니아 리키엘에게 있어 편직 방법에 의한 문양의 표현은 다른 디자이너와 차별화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모든 니트 기계에서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스트라이프(stripes)와 편직 기법의 제한을 받으며 핸드 니팅에 의해 원하는 문양을 정교하고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인타샤(intarsia)기법은 소니아 리키엘의 니트 디자인에서 지속적으로 응용되고 있다.

스트라이프는 소니아 리키엘의 니트 패션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스트라이프 패턴의 옷은 중세에는 광대, 나병환자, 사형집행인이나 매춘부 등 사회적

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표시였으며 죄수복 역시 60년대 까지는 줄무늬였다(Loscheck & Schmid, 1999/2001). 그러나 샤넬이 선원들의 복장에서 영감을 받아 니트웨어에 응용한 이후 소니아 리키엘에 의하여 대중화되었다. 스트라이프 문양은 방향과 폭, 배열 방법, 색상 대비와 같은 다양한 요소의 변화를 통하여 스포티브하고 캐주얼한 이미지를 연출한다.

많은 디자이너들이 니트 디자인에 스트라이프를 응용하고 있지만 소니아 리키엘 만큼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는 디자이너는 없으며 특히, 앞면과 뒷면을 뒤집어서 표현하는 스트라이프는 소니아 리키엘에 의해 처음 시도 되었다. [그림 9, 12]에서 응용된 2도 스트라이프는 흰색과 검정색, 흰색과 녹색의 단순한 구성이지만 함께 코디한 모자와 스커트, 신발 등의 컬러를 일치시켜 활동적이면서도 섬세한 디자인을 표현하였다. 반면 [그림 10, 11]에서 보여지는 스트라이프는 5도 이상의 멀티 스트라이프이며 주조색과 보조색의 개념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스트라이프의 간격으로 조정하고 있다. 스트라이프 패턴을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로 활용하여 40년간 지속적으로 컬렉션에서 발표하고 있는 소니아 리키엘은 스트라이프가 갖고 있는 활동성과 실용성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

니트에서만이 표현 가능한 인타샤 기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시즌 테마를 전달하는 방식도 소니아 리키엘의 중요한 작업수단이 되고 있다. 자신을 캐릭터화 시킨 인물이나 숫자, 문구를 이용한 슬로건, 사파, 앵두, 하트나 입술 같은 약간은 관능적이고 도발적인 모티브를 이용하여 때로는 섬세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 13]에서 표현된 사파는 앵두와 함께 자주 응용하는 모티브로 붉은 색의 정열을 흰색 또는 검정색과 함께 대비시켜 사랑스러우면서도 섹시한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그림 14]는 인타샤로 편직된 옷의 안과 겉을 뒤집어서 마치 글씨 주위에 봉제에 의한 스티치가 있는 것처럼 표현되었으며 이러한 기법은 소니아 리키엘에 의해 처음 시도 되었고, 지금까지 중요한 표현 수단이 되고 있다. [그림 15, 16]은 자신을 그래픽적으로 캐릭터화 시켜서 편직하여 표현하였다. 자신의 작업과 디자인에 대한 당당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와 같은 유희적 문양은 고급 기성복의 경직된 분위기에 자유로운 즐거움을 주고 있다.

4. 아이템의 다양성

니트웨어가 단품 아이템의 영역에서 벗어나 토탈 룩을

<표 1> 소니아 리키엘 니트 디자인의 조형 요소와 변천

조형 요소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색채	검정색 (자유의 상징) 경쾌하고 안정된 색채조화 실용성, 관능성				
장식	비즈·스톤의 부착 모피나 악세사리 활용 여성성				
편직	STRIPE 지속적인 응용 대표문양 실용성				
	INTARSIA 정체성의 표현 니트만의 고유영역 유희성				
아이템	팬츠, 코트, 수영복, 자켓, 악세사리 등 모든 아이템을 니트로 제작 관능성, 실용성				

구성하게 된 것은 소니아 리키엘에 의해 완성되었다. 물론 1916년에 샤넬이 발표한 저지 투피스도 토탈 룩을 제시한 디자인이지만 이것은 저지(한편으로 짜여 진 원단)로만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횡편과 황편을 자유로이 응용하여 니트로 된 토탈 룩을 제시한 것은 니트로만 구성된 브랜드의 탄생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림 17]은 저지로 된 팬츠와 타이트한 상의, 그리고 같은 소재를 다른 방법으로 편직한 베스트의 쓰리 피스로 구성되었다. 초창기 소니아 리키엘의 디자인은 몸에 피트 되는 스웨터와 넓은 폭의 팬츠를 제시하였으며 이것은 현재까지도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하며 각자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양상들에 대한 애착은 다른 옷과의 믹스 앤 매치(mix and match)로 인해 다양한 코디네이션이 가능하다는 디자인 철학에서 시작되었으며, 현대의 기본적인 레이어드 시스템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8]은 더욱 여성스럽게 표현된 팬츠와 스웨터의 양상들로 화이트 색상의 칼라와 장갑을 코디하여 순수한 여성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19]에서 보여 지는 롱 코트와 팬츠, 스웨터의 쓰리 피스도 모헤어가 섞인 원사를 각자 다른 조직의 기법으로 편직하여 관능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연출하고 있다. 니트로 제작된 다양한 아이템의 도전은 [그림 20]에서처럼 수영복과 비치가운 같은 니트웨어에서도 나타난다. 20세기 초 니트로 제작된 수영복이 실질적인 수영복의 기능을 한 것과는 달리, 신축성 소재가 개발된 이후의 니트 수영복은 해변 가에서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가벼운 일상복의 기능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대담한 디자인을 가능하게 한다.

이처럼 소니아 리키엘의 니트 아이템은 다른 브랜드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다양성과 실용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시대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은 신체를 우아하게 감싸면서도 현대 여성의 활동을 보완해야 한다는 디자인 철학 안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실용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IV. 2000년대 이후 소니아 리키엘의 니트 디자인 특성

1. 유행을 초월한 실용성

자신을 위한 일부복으로 디자인을 시작한 소니아 리키

엘의 디자인 철학은 패셔너블하면서 편안한 옷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식은 유행을 초월하여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그녀의 니트웨어는 프랑스 디자이너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실용성을 추구하는 미국에서 사랑받기 시작하였고 사업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것은 소니아 리키엘의 디자인이 심미적인 패션 감각과 상업적인 영향력을 동시에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Watson, 1999). [그림 21]은 블랙의 모헤어 원사와 헤어가 없는 회색의 실을 대비시켜 표면의 재질감을 활용하였다. 스트라이프 문양과 모자, 리본 디테일 등으로 단순한 실루엣에 디자인 포인트를 더하고 있다. 모헤어의 원사 특성을 활용하여 성근 조직으로 편직하였기 때문에 더욱 유연하고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연출하면서 동시에 보온성도 유지하고 있다. [그림 22]의 디자인은 넓고 깊게 파인 브이 네크 스웨터로 약간의 관능성을 표현하고, 신체를 자연스럽게 감싸는 팬츠와 머플러 형태의 롱 베스트로 행동에 제약을 주지 않는 여유로움을 나타내고 있다. 그녀가 자주 응용하는 코사지(corsage)와 같은 이미지의 핸드백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그림 23]의 디자인 역시 일상생활에서 항상 착용할 수 있는 체크 패턴의 점퍼 스타일 스웨터와 슬림한 팬츠이다. 같은 패턴으로 제작된 코사지와 모자로 포인트를 주었으며 고급 모헤어 원사로 제작하여 부가가치를 더하였다. 코사지만 떼어내면 스포츠 캐주얼한 복장으로 완성되는 실용성이 나타난다. [그림 24]의 디자인은 변형된 조직 효과를 활용하여 풀 오버(pull-over) 스웨터와 스커트의 일반적이지 않은 투 피스를 제시하였다. 베레모와 모피 머플러, 같은 조직을 응용하여 제작한 코사지와 장갑 같은 실용적인 디자인의 단순성에 부가가치를 더하고 있다.

이처럼 소니아 리키엘의 디자인은 세련되면서도 실용적인 착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흥망의 역사가 짧은 패션계에서 지속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2. 놀이와 항수의 유희성

도도한 세련미와 함께 일탈에서의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도 소니아 리키엘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이다. 패션에서 나타나는 유희적인 표현은 정신적인 긴장을 해소하고 치열한 현대인의 삶에서 잠시나마 어린 시절에 대한 놀이와 항수를 경험하게 한다. 유희적인 특징을 갖는 디자인의 출현은 우리 생활의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고 있으며, 동심으로 돌아가 재미있게 살고 싶은 아동적 감성의 성인들을 자극하는 일종의 소비 문화 현상이며 현대의 새로운

소비 코드이다(김영인 외,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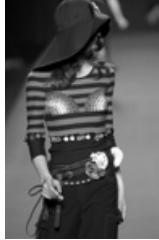
소니아 리키엘의 디자인에서 나타나는 유희성은 실루엣의 과장이나 과도한 장식, 동화적 상상력 보다는 외출복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문양으로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그녀가 즐겨 사용하는 인타샤 기법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림 25]의 모티브는 스스로를 캐릭터 한 얼굴이며, 루즈한 실루엣의 커다란 스웨터 위에 대담한 색채로 표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있고 세련된 즐거움을 주고 있다. 머리에 자연스럽게 눌러 쓴 모자와 살짝 드러난 어깨로 인해 더욱 편안한 느낌을 전달하고 있다. [그림 26]은 인타샤 기법과 스트라이프를 동시에 활용하여 경쾌한 유희성이 보이고 있다. 가슴을 강조한 패턴은 전혀 관능적으로 보이지 않으며, 그녀의 기발한 아이디어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한다. [그림 27]은 엘자 스키아파렐리(Elsa Schiaparelli : 1890~1973)에 의해 처음

니트에 시도된 트롱쁘 뢰유(trom pe-l'œil) 기법으로 표현된 원피스이다. 넥타이와 벨트, 주머니, 단추 등을 문양으로 짜서 표현하였고 리본과 벨트 고리는 니트로 짜서 부착한 아이디어가 신선한 즐거움을 전달한다. 이와 같은 눈속임 기법은 카사렐(Cacharel)이나 안나 수이(Anna Sui: 1955~) 등의 컬렉션에도 가끔 시도되고 있지만 소니아 리키엘 만큼 지속성을 보이지는 않는다. [그림 28]은 패션쇼를 위한 퍼포먼스에 등장한 원피스로 실용성은 없지만, 자신을 캐릭터한 모델이 핸드 니팅하는 모습을 통해 니트 작업에 대한 자신의 애정과 일을 통해 얻는 즐거움을 유희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3. 관능적 여성성

패션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우리의 몸을 숭배한다

〈표 2〉 2000년 이후 소니아 리키엘의 니트 디자인 특성

	특성	작 품 분 석			
유행을 초월한 실용성	페셔너블하면서 편안한 웃 (행동의 자유) demode (탈유행) 실용적인 착장				
		[그림 21]02 F/W	[그림 22]02 F/W	[그림 23]03 F/W	[그림 24]04 F/W
놀이와 향수의 유희성	문양으로 표현 (intarsia) 가벼운 즐거움 (상상력 표현) 긴장된 삶의 일탈				
		[그림 25]03 S/S	[그림 26]05 S/S	[그림 27]08 S/S	[그림 28]09 S/S
관능적 여성성	온유적 노출 (니트조직활용) 은밀한 에로티시즘 (body conscious) 밀착된 신체				
		[그림 29]02 F/W	[그림 30]03 S/S	[그림 31]03 S/S	[그림 32]04 F/W

는 것이다(Evans, 2003). 소니아 리키엘의 패션에 대한 관점도 최대한 신체를 편안하게 하면서 돋보이게 하는데 있다. 소니아 리키엘의 니트웨어에서 나타나는 관능적 표현은 니트의 신축성을 이용한 피트되는 신체와 조직 사이로 비치는 신체, 니트의 유연성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신체 등에 의해 나타난다. 그녀의 디자인 저변에 깔려있는 신체의 해방은, 니트를 통해 여성의 더욱 자유롭게 행동하고 섹시하게 어필하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그녀의 드레스와 스웨터들은 그것을 입는 여성들을 위한 두 번째 피부와 같다(Joines & Rushton, 2008). [그림 29]는 니트의 성근 조직 사이로 드러나는 신체가 정숙한 팬츠, 엘레강스한 모자와 대비되면서 자연스러운 노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지나친 노출의 형태를 취하지 않는 이 같은 착장은 오히려 은밀한 관능미를 유발하면서 여성성을 더욱 강하게 나타낸다. [그림 30]은 신체의 선이 완전하게 드러날 정도로 밀착된 바디 컨셔스(body conscious) 원피스를 스트라이프 패턴을 통해 경쾌하게 표현하였다. 몸에 피트되면서 행동을 자유롭게 하는 니트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소니아 리키엘 초기 디자인의 지속적인 형태이다. 신체를 숨기기보다는 자신 있게 드러내는 디자인은 속옷을 입는 것을 제한할 정도로 피트된 실루엣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또한 관능적 표현의 한 도구로 작용되고 있다. 니트의 유연성으로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신체는 직접적인 노출보다 더욱 은밀한 에로티시즘을 유발한다. [그림 31]의 스웨터와 핫팬츠는 쇄골과 골반의 드러나는 과감성을 나타내고 있지만, 긴소매로 노출의 수위를 적절히 조절하였다. [그림 32]는 그래픽적인 문양을 통해 다소 유희적인 관능성을 표현하였다. 몸에 피트되는 스커트의 뒷부분에 손을 댄 모습은 이것을 보는 남성들의 대리 만족을 유발하고 있으며, 과하지 않은 초현실주의적 기법이 즐겁고 가벼운 에로티시즘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적인 신체를 과시하고 싶어 하는 현대 패션의 트렌드는 은유적인 관능미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소니아 리키엘의 니트웨어에서 나타나는 관능성은 그녀의 디자인이 지속적인 사랑을 받는 원인이 되고 있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니트 패션의 역사에 있어 소니아 리키엘의 가장 큰 공

적은 니트웨어를 패셔너블한 외출복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이다. 니트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던 그녀는 니트이기에 가능한 작업에 중점을 맞추고 디자인을 전개해 나갔다. 신축성을 적절히 활용하여 몸에 피트되는 디자인으로 섹시함과 활동성을 강조하고, 드레이프성을 활용하여 겹쳐 입거나 드러나는 여유와 풍족함을 과시하였다.

독특한 편직기법과 색채를 이용하여 새로운 디자인에 도전하였기 때문에, 핸드니팅(hand knitting)이나 인타사기법, 스트라이프의 응용이 두드러지고, 검정을 중심으로 한 다이나믹한 컬러의 조합은 생동감과 경쾌함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소니아 리키엘은 니트웨어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다양한 부자재와 악세사리를 활용하였으며,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끊임없는 시도도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이처럼 그녀의 디자인에 지속적으로 응용되는 조형 요소들의 분석에서 보여지는 니트 디자인의 특성은 첫째, 유행에 연연하지 않고 신체를 편안하게 감싸면서 패셔너블한 디자인을 추구하는 실용성 둘째, 고급 기성복의 무게감과 화려함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에서의 정신적 긴장을 해소하고 가벼운 즐거움을 전달하는 유희성 셋째, 신축성, 유연성 등과 같은 니트의 물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신체를 자유롭게 함과 동시에 은밀한 에로티시즘을 나타내는 관능적 여성성 등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와 같이 소니아 리키엘 디자인의 조형 요소와 시대에 따른 변천, 그리고 니트 디자인에 나타난 특성들을 연구한 결과 시대를 초월하여 지속적으로 사랑 받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작품표현의 중요한 수단으로 니트를 선택하여 다양하고 실용적인 아이템과 오리지널한 패턴과 색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니트의 여왕’이란 호칭에 어울리게 독보적인 영역을 유지하고 있으며 둘째, 탈유행이라는 디자인 철학 하에 소비자를 자신의 디자인 틀에 맞추려하기보다는 자신이 디자인한 옷을 소비자가 자유롭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스스로가 자신의 개성을 발견해 가는 자유와 기쁨을 선사하고 있으며 셋째, 다른 디자이너들과는 달리 매년 트렌드에 좌우되는 새로운 디자인을 제시하거나 전혀 다른 컨셉을 보여주려는 노력보다는 입어서 편안하고 세련된 여성상을 추구하는 일관된 컨셉 하에 조금씩 변화를 주는 작업 스타일을 고집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2. 제언

짧은 니트 패션의 역사 속에서 40년간 정상을 유지하고 있는 소니아 리키엘에 대한 연구는, 소비자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 후배 디자이너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때문에 소비자의 관점에서 유행에 편승하지 않는 실용성으로 확고한 방향성을 표현하는 디자인 자체는 패션의 역사와 함께한 소니아 리키엘이 우리에게 던지는 커다란 메시지이며, 디자이너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유도한다.

본 연구는 프레타 포르테의 초창기 디자이너 중 가장 긴 시간 현역 활동을 하고 있는 소니아 리키엘 디자인의 생명력을 규명하기 위하여 진행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디자인 요소의 관점에서 분석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시대와 호흡하며 표현되는 다른 조형 요소들과 특성들에 대한 연구도 소니아 리키엘의 디자인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다음 연구에서는 지속성이 아닌 한계성의 관점에서 연구할 과제를 남기며 본 논문을 정리하고자 한다.

주제어 : 안티패션, 탈유행, 유희성, 관능성, 실용성

참 고 문 헌

- 구글, 자료검색일 2010. 5. 15 ~ 6. 10 자료출처
<http://www.google.com>.
- 금기숙, 김민자, 김영인, 김윤희, 박명희, 박미녀, 배천범, 신혜순, 유혜영, 최해주. (2002). **현대 패션 100년**. 서울: 교문사.
- 김영인, 김신우, 김정신, 김희연, 송금옥, 이연희, 이현주, 조애래, 주미영, 한은주. (2006). **룩-패션을 보는 아홉가지 시선**. 서울: 교문사.
- 박숙현, 이관이. (2004). 모던 시대와 포스트 모던시대의 샤텔 스타일 특성비교. **한국생활과학회지**, 13(1), 159-171.
- 스타일닷컴, 자료검색일 2010. 5. 5 ~ 6. 10 자료출처
<http://www.style.com>.
- 이미숙. (1999). 샤텔 슈트의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 48, 197-216.

- 이미화. (2003). 현대 여성 니트 디자인 경향 연구 -Sonia Rykiel의 작품분석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연희, 이승아, 조주연. (2009). 소니아 리키엘 컬렉션에 나타난 니트웨어 색채 특성. **한국 패션디자인학회지**, 9(3), 1-12.
- 진성모 외. (2002). **패션 문화**. 서울: 예학사.
- 퍼스트뷰, 자료검색일 2010. 5. 25 ~ 6. 10 자료출처
<http://www.firstview.com>.
- 村上新子. (2001). *Spur*. Tokyo: Shueisha.
- Black, S. (2002). *Knitwear in fashion*. London: Thames & Hudson.
- Buxbaum, G. (1999). *Icons of Fashion (The 20th century)*. New York, London: Prestel.
- Crail, J. (1993). 정인희 옮김. (2001). **패션의 열굴**. 서울: 푸른솔.
- Evans, C. (2003). *Fashion at the edge*. Yale.
- Francois, B. (1999). *Fashion the Twentieth Century*. Paris: Schirmer.
- Golbin, P. (2001). *Fashion Designers*. New Yock: Watson Guptill.
- Jones, T., & Rushton, S. (2008). *Fashion Now 2*. Köln: Taschen.
- Loscheck, I., & Schmid, B. (1999). 황현숙 옮김 (2001). **패션의 클래식**. 서울: 예경.
- Lipovetsky, G. (1987). 이득재 옮김 (1999). **패션의 제국**. 서울: 문예출판사.
- Mendes, V., & De la haye, A. (1999). 김정은 옮김 (2003). **20세기 패션**. 서울: 시공사.
- Sonia Rykiel (2009. November 25). FIDM Museum Blog. Retrieved May 11. 2010. from <http://blog.fidmmuseum.org/museum/ready-to-wear/>
- Watson, L. (1999). *Vogue Fashion*. London: Carlton.

접수일 : 2010. 10. 11.
 수정완료일 : 2010. 10. 20.
 게재확정일 : 2010. 10. 21.